

전북형 문화집강소 프로젝트 통합워크숍 성료

전주·남원·고창 4개 운영단체 40여명 참여... 주민 발굴 지역 문화의제 연말 시범 콘텐츠로 선보여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주민이 직접 지역의 문화의제를 발굴하고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는 전북형 문화자치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8일 전주 복합문화공간 모이장에서 '2026 도민참여 전북형 문화집강소 프로젝트' 통합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내륙권·동부권·서부권 3개 권역의 4개 운영단체 문화집강소 운영위원과 전문가 워킹그룹, 전북특별자치도 및 재단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의제 발굴 과정과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4개 운영단체는 지역에서 진행해 온 의제 발굴 방식과 자율기획 프로그램 계획을 발표했다.

전주 '쥬더레드'는 남부시장 골목간담회와 라운드테이블, 거리 인터뷰 등을 통해 상인들의 이야기를 수집하는 방식을 소개했다.

전주민족예술인총연합회는 온라인 설문문을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뒤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역 의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제시했다.

남원 '따뜻한소통협동조합'은 주민이 지역 문제를 직접 제기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리빙랩 방식을 공유했다.

고창 '책마을해리'는 여러 차례 주민 모임과 논의를 거친 뒤 평등투표를 통해 지역 의제를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8일 전주 복합문화공간 모이장에서 '2026 도민참여 전북형 문화집강소 프로젝트' 통합워크숍을 개최했다.

선정하는 과정을 소개했다.

이어진 네트워킹에서는 각 지역 운영위원과 전문가 워킹그룹이 주민을 만나며 겪은 경험과 현장의 고민을 공유했다.

주민과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가운데 어떤 내용을 지역의 핵심 의제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까지 현장에서 겪은 다양한 사례가 논의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지역 의제 발굴이 단순히 설문이나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데 의미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주·남원·고창 4개 운영단체가 문화집강소 운영위

원회를 구성하면서 본격화됐다. 현재 주민과 예술인, 기획자 등 총 51명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는 운영위원회와 전문가 워킹그룹의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역 현안과 문화의제를 발굴해 왔다.

앞으로 각 문화집강소는 주민과 함께 발굴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의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핵심의제를 선정한 뒤 자율기획 프로그램과 시범 문화콘텐츠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연말에는 지역별 성과공유회를 열어 한 해 동안의 활동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12월 통합 성과공유회에서는 각 지역의 핵심의제와 시범 문화콘텐츠를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천년전주 동네방네 이야기음악극

전주작곡가협회, 오늘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서 전석 무료 공연

전주 곳곳에 전해 내려오는 옛이야기를 음악극으로 재탄생해 관객을 만난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의 '2026 무대작품제작지원사업'에 선정된 전주작곡가협회는 21일 오후 7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천년전주 동네방네 이야기음악극'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도내 공연예술단체의 창작 역량을 높이고 우수 공연 콘텐츠를 발굴해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년전주 동네방네 이야기음악극'은 전주 곳곳에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음악극으로 재해석한 창작 작품이다.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전주의 공간과 동네에 얽힌 이야기를 음악과 공연으로 풀어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 준다.

공연에서는 금암동 거북바위, 인후동 도마리, 완산동 기령당, 진북동 숲정이, 삼천동 골술나무, 효자동 장개남, 서학동 학 등 전주 7개 동네에 전해오는 이야기가 무대에 오른다.

이와 함께 '전주사람 이야기'와 '전주별곡 이야기'도 선보인다.

특히 판소리 도창이 이야기의 흐름을 이끌고 오케스트라와 성악가들이 음악을 더



해 각 동네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관객들은 평소 익숙하게 지내던 전주의 공간에 담긴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나면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색다르게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은 약 60분간 진행되며 전석 무료 초대로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작곡가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오상근 기자

정읍 달하미술관 3곳서 이철재 작가 '정읍화행' 무료 전시

정읍시가 운영하는 달하미술관이 오는 10월 18일까지 신태인·연지·수성 전시관에서 이철재 작가의 '정읍화행'을 무료로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공모를 통해 선정한 지역작가 3명을 차례로 소개하는 두 번째 전시다. 관람객의 호응 속에 첫 번째 전시를 마친 달하미술관은 정읍의 자연과 삶을 담은 이철재 작가의 그림 11점을 새롭게 내놓았다.

이철재 작가는 예향의 도시 정읍에서 40여년간 후학을 가르치는 동시에 꾸준히 작품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가 오랜 시간 쌓아온 예술세계를 풍경화와 정물화, 생활화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작가는 정읍의 산과 들, 황토 내음이 느껴지는 자연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빛과 색을 화폭에 담았다. 일상에서 쉽게 지나치는 생활용품과 꽃, 삶의 공간도 중후한 색감과 두터운 질감, 섬세한 붓질로 새롭게 표현했다.

전시 제목인 '정읍화행'에는 자연과의 소통



이 예술의 본질이라는 작가의 생각이 담겼다. 작품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고향의 품과 같은 따뜻한 위로와 보는 즐거움을 전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29일 콘사노체임버오케스트라 기획공연 '시네마틱 부안' 개최

부안군은 2026 부안 예술회관 상주단체 콘사노체임버오케스트라의 기획공연 '시네마틱 부안'을 오는 29일 오후 4시 부안 예술회관 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부안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 공간을 클래식 음악과 배우들의 낭독, 미디어아트로 풀어낸 웅복합 공연으로 지역의 풍경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음악과 문화적 울림으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다.

배우 김연재, 신영진, 이재현, 임이랑이 출연해 작품 속 인물들의 감정과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공연 30분 전부터 선착순 입장으로 진행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시립국악단(예술감독 겸 지휘자 심상욱)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덕진예술회관에서 '8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향유 享有: 모두의 아침' 공연을 무료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시민들이 여유로운 아침과 함께 국악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대중에게 친숙한 창작국악을 중심으로 누구나 쉽고 부담 없이 우리 음악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공연은 이준호 작곡의 '관놀이Ⅱ'를 시작으로, 만화영화의 익숙한 선율을 국악관현악으로 재해석한 '만화영화 연곡', 전주의 흥과 맛을 담은 '한바탕 전주', 국악관현악과 무용이 어우러지는 '입춤을 위한 국악관현악 허튼' 등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진다.

시립국악단은 또 노래와 국악관현악이 함께 하는 '동네 한 바퀴'와 춘향가의 대표적인 대목을 친숙하게 풀어낸 '사랑가'를 선보이고, 마지막 무대는 국악관현악과 사물놀이 어우러지는 박범호 작곡의 사물놀이 협주곡 '신도름'으로 공연의 매미를 장식하게 된다.

이와 관련 덕진예술회장은 올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공연



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1월까지 전주시립예술단 등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무대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향유 享有: 모두의 아침' 공연은 문화가 있는 날 공연으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입장권은 나무결쳐 누리집 또는 전화(1522-6278)로 예매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의 유산

국내 최대의 고대 저수지

김제 벽골제

전주매일 캠페인

국내 최대의 고대 저수지인 사적 제111호 벽골제는 김제시 부랑면 신흥리에서 월송리에 걸친 약 3km에 이르는 제방(무 개)의 수문 장제지와 정장터 포항과 1415년 건립된 벽골제 중수비를 포함하여 1963년 1월 21일에 국가사적 제111호로 지정·판정되고 있다.

국가사적 벽골제와 그 배경인 김제만경읍의 문화사적 의미를 조형하기 위해 김제시는 1975년 벽골제 부분발굴을 필두로 1980년 유적정화공사, 1990년 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추진을 통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할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했다.

현 벽골제단지에는 벽골제와 농경문화를 대우제로 전시 및 자료수집과 연구조사를 진행하는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김제를 발원지로 일제강점기를 다룬 소설 아리랑의 자료를 전시하는 아리랑문화관, 그리고 전북미술계의 거목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친 나상문선생의 벽화미술관과 농경사를 주제로 어린이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농경사주제관 및 체험관, 김제 우도농악관 등 문화시설과 각종 야외전시장로 구성돼 있다.

사적 벽골제와 각 박물관들은 오래된 고을, 김제의 지역정체성 및 문화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문화공간이자 휴식공간의 역할을 수행하며 문화백년지대 김제를 표방하고 있다.

- 출처: 김제시청 홈페이지 -

김제 벽골제에 조성된 쌍룡 조형물. (김제시청 제공)